

2009. 12. 21 제229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2010년 월드컵 기념 'FIFA 국제 팬 축제' 개최 (베를린)

산업·경제

2. 중소기업의 매력을 홍보하는 '현장 체험 투어' 실시 (도쿄)
3. 주요 상점가에 외화 자동 환전기 설치 (상하이)
4. 외국인의 서비스업종 투자 규제 완화 (중국)

건강·복지

5. 다양한 육아지원 대책 추진 (도쿄)
6.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학생 출석 확인 (브라질 상파울루州)
7. 장기 노숙자 집중관리대책 시행 (런던)
8. 저소득층을 위한 '크리스마스 복지 장터' 운영 (베를린)
9. 장애인 가이드북 발간 (베를린)
10. 자원봉사자에게 '명예신분증' 수여 (베를린)
11. 도립 고교의 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중점지원 학교' 지정 (도쿄)
12.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시행 (중국)
13.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허용 (상하이)

목 차

방재·안전

14. 어린이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뉴욕)

도시환경

15. ‘안 쓰는 땅을 텃밭으로’, 도심농장 확대 (런던)
16. 공공건물에 온실가스 저감대책 확대 시행 (런던)
17.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 (뉴욕)
18. 폐쇄된 공항 부지에서 ‘2017년 국제 정원 전시회’ 개최 (베를린)
19.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추진 (일본)
20. 재생에너지 공급·이용을 위한 지역 간 제휴사업 실시 (도쿄)

도시교통

21. 환경부담 없는 수로 건설 추진 (베를린)
22.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논란 (중국)

도시계획·주택

23. 공공공간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런던)

1. 2010년 월드컵 기념 ‘FIFA 국제 팬 축제’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대회와 동시에 열리는 ‘FIFA 국제 팬 축제’ 개최도시로 선정됨. 이에 따라 市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기관과 함께 행사 준비에 착수함.

- 市는 팬 축제 장소를 ‘6월 17일路’로 정하고 이곳에서 2010년 6월 26일부터 16강전에서 결승전까지 전 경기를 중계하고 다양한 행사를 옴.

- 베를린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부상함. 국제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2007년에는 세계 3위, 2008년에는 세계 2위의 스포츠도시로 선정됨. 2009년 11월 런던에서 열린 ‘2009 스포츠 이벤트 매니지먼트賞’ 시상식에서는 스포츠도시 2위상을 받음.

· 최근 성공적으로 열린 대규모 스포츠 행사(2006년 독일 월드컵, 2009년 8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호의적인 도시 분위기,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첨단 스포츠시설, 전문 이벤트 에이전시의 원활한 행사 진행 등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함.

- 市는 이밖에도 2008년 축구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 ‘축구 엘리트 스쿨’을 개관하면서 축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18/146593/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23/147270/index.html)

2. 중소기업의 매력을 홍보하는 ‘현장 체험 투어’ 실시 (도쿄)

○ 도쿄都是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매력을 청소년에게 홍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매력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함. 都是 그동안 중소기업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왔는데, 이번에는 제조업종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실제로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함.

-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는 현장 체험과 선배사원과의 간담회는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 대상 업종은 알루미늄 가공, 전기 도금, 비철금속 제조, 정밀금속판 가공업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o800.htm)

3. 주요 상점가에 외화 자동 환전기 설치 (상하이)

○ 상하이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외화를 중국 인민폐로 바꿀 수 있게 됨. 푸둥발전은행(浦发银行)은 최근 외화 자동 환전기를 상하이 최대 상점가인 남경동로(南經東路) 등 12곳에 설치함.

- 환전기는 당일 외환시세가 표시되고 중국어, 영어, 일어 등 3개 국가의 언어로 검색할 수 있음. 외화를 넣으면 당일 환율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동전까지 나옴.

· 이 은행은 2010년 엑스포를 맞이해 환전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다른 은행도 환전기를 설치할 전망이다.

(<http://sh.xinmin.cn/shizheng/2009/11/30/2999973.htm>)

4. 외국인의 서비스업종 투자 규제 완화 (중국)

○ 중국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동업이나 합병 (Partnership) 형식으로 중국 내에 서비스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2009년 12월 밝힘. 이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자 유치를 늘리고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동업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함임.

-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① 2개 이상의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기타 기관과 공동 설립할 수도 있으며. ②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동업자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됨.

- 법률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서비스업 투자 규제를 점차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이번 방침은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회사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함.

(<http://news.hexun.com/2009-12-02/121888491.html>)

건강 · 복지

5. 다양한 육아지원 대책 추진 (도쿄)

○ 도쿄都는 육아지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2005년 4월 수립)과 ‘육아 응원도시 도쿄 중점전략’(2007년 12월 수립)의 추진실적을 최근 발표함.

-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에서는 5개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都는 전반기(2005~2009년) 달성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① 육아가정 지원센터 건립(2007년 목표 49개소 대비 47개소 달성), ② 맞벌이 가정의 아동 보육(2009년 목표 18만 4700명 대비 18만 5024명 달성), ③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2013년 목표 62개소 대비 29개소 달성), ④ 장애아를 위한 그룹 홈 설치(2007년 목표 100개소 대비 101개소 달성), ⑤ ‘안전교실’(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실시(현재 도내 공립 초·중·고 2312개교에서 실시) 등임.

- ‘육아 응원도시 도쿄’ 중점전략은, 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 ② 육아휴직 사용 촉진, ③ 여성 재취업 촉진, ④ 보육원 대기아동 감축, ⑤ 긴급·일시 보육 지원, 방과 후 교실 확충, ⑥ 육아 지원거점 강화, ⑦ 어린이와 동반하여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⑧ 육아 배려형 주택환경 정비, ⑨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의료체제 정비, ⑩ 육아를 응원하는 사회 실현 등임.

(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1/60jbu100.htm)

한 줄 뉴스

● 뉴욕

- 뉴욕市 수돗물이 2009년 뉴욕州에서 가장 맛있는 물로 선정

● 런던

- 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대회를 열고 수상작은 공공기관에서 실제 활용
- 국철, 지하철, 수상교통기관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 교통카드 도입

6.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학생 출석 확인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상파울루州에 있는 마르칭스 주립학교는 지문인식시스템이나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주고 있음.

- 이 학교는 학교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학생이 등교하면서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함. 출석 확인이 완료되면 교사에게 결석자 명단이 전달되고 결석한 학생의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자동 전송됨.

· 이 학교는 이미 2003년부터 전자카드로 출석을 확인해 왔으며 2009년에는 생체인식기를 도입할 만큼 전자출석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다른 학교와 달리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출석상황, 수강과목, 과목별 점수 등도 알 수 있음.

(oglobo.globo.com/cidades/mat/2009/11/26/sistema-digital-avisara-pais-sobre-presenca-de-alunos-em-escola-do-interior-de-sp-914930775.asp)

7. 장기 노숙자 집중관리대책 시행 (런던)

○ 런던市가 시행 중인 습관성 장기 노숙자 집중관리대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9년 2월 장기 노숙자 205명을 집중 관리한 결과 2009년 12월 현재 대상자의 2/3 정도가 노숙상태를 벗어남.

- 이에 따라 市는 2012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일반적으로 장기 노숙자는 5년 이상 노숙하고 지원대책 참여를 거부하며 정신병력이나 마약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음.

- 市는 시설 입소에 거부감이 없는 노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이전 대책과 달리 장기 습관성 노숙자를 설득하고 지원 대책을 끈기 있게 시행함으로써 성과를 거둠.

- 市는 현재 거리에 남아 있는 노숙자도 2010년 봄까지는 숙소를 마련하여 옮겨갈 것으로 예상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319)

8. 저소득층을 위한 ‘크리스마스 복지 장터’ 운영 (베를린)

- 베를린市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장터를 조성함. 포츠담 광장, 시청 앞 광장 등에 대규모 장터가 설치되고 각 자치구에도 장터가 열림. 市 전역에서 40여 곳의 장터가 크리스마스 전후 한 달간 매일 밤늦도록 열림.

- 특히 12월 4일에는 市 지원으로 크리스마스 복지장터가 샬로텐부르크區에서 문을 엮. 이 장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크리스마스 장터임.

- 월수입 900유로(약 150만 원) 이하인 시민들이 이곳에서 의류, 장난감, 자전거 등을 다른 장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 복지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명서, 연금수혜자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4/148603/index.html)

9. 장애인 가이드북 발간 (베를린)

- 베를린市는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북 개정판을 최근 발간함. 120여 쪽인 이 소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인 상담소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 신분증 신청방법,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개념 정의, 장애인의 권리, 관련 법 규정, 장애인 상담소와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및 사립기관 목록 등을 수록함.

- 이 가이드북은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문제인 일자리 구하기,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세금문제, 주거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

개하고 있어 장애인이 사회·문화·정치·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졌음.

- 市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베를린 시각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오디오버전의 가이드북도 제작함.
 - 가이드북은 각 지역 관공서의 고객센터, 장애인 상담소, 사회봉사센터, 종합병원 등에서 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18/146573/index.html)

10. 자원봉사자에게 ‘명예신분증’ 수여 (베를린)

- 베를린에서는 현재 약 85만 명의 시민이 2만 개가 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市는 2009년 11월 23일 시청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베를린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수여하는 자원봉사자 축제를 열었음.

- 이 신분증은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임.
 - 만 12세 이상 시민이 자신의 직업 활동 외에 사회복지기관 업무 보조, 이웃돕기, 환경보호 활동, 문화 및 스포츠 행사 보조, 재난구조 등에서 연간 총 80시간 또는 프로젝트 참가 형태로 연속 200시간 이상 무상으로 봉사 활동을 한 경우(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외에 연간 총 60시간 또는 프로젝트 참가 100시간 이상) 발급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1/20/147001/index.html)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1204.html)

11. 도립 고교의 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중점지원 학교’ 지정 (도쿄)

- 도쿄都 교육위원회는 2003년부터 도립 고교를 대상으로 중점지원학교 지정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개교가 지정되었음. 이 제도는 학교의 자율적인 개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임.

-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로 개성과 특색을 살려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都 교육위원회는 추진성과를 공표해 다른 학교에도 자율적인 개혁이 전파되도록 함.
 - 혼조 고교는 종합적인 진학 및 생활 지도, 직업관 교육으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시하나 고교는 특별활동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중점지원학교 지정을 위한 주요 평가항목은 ① 교장의 리더십, ② 개혁 비전, ③ 개혁안과 개혁열정, ④ 기대효과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1/20jbqa00.htm)

12.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표준’ 시행 (중국)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식품용 랩, 스포츠음료, 1회용 플라스틱 식기 등 3개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을 시행할 방침임.
 - 국가표준에서는 스포츠음료의 경우 흥분제 등 세계 반도핑 기구가 정한 금지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랩의 경우 ‘식품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폴리에틸렌 랩은 ‘기름기가 있는 식품에는 사용 금지’, ‘전자레인지와 고온상태에서 사용 금지’ 등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랩의 경우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 이란 문구를 표기하고 가열방식과 최고 내열(耐熱) 온도를 명시하도록 함.
 - 1회용 식기의 경우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분해 가능’이란 문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해 가능한 식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성분이 기준치에 도달해야만 이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13.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허용 (상하이)

○ 상하이市는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외국 장기거주증 취득자와 대만·홍콩·마카오 주민들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림.

- 기본 노인연금보험 가입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전문가 증서, 상하이 거주증, 외국인 취업증 등을 소지한 경우 기본 노인연금보험,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① 보험기간 내에 질병,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기본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② 기본 노인연금보험에 가입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③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노동능력 감정 등을 거쳐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④ 노인연금보험 가입 후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전에 중국을 떠날 경우 노인연금 계좌에 있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노인연금 계좌에 있는 잔액을 상속할 수 있음.

(<http://sh.xinmin.cn/minsheng/2009/11/23/2958952.html>)

방재 · 안전

14. 어린이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뉴욕)

○ 뉴욕市는 최근 어린이가 고층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어린이 추락 방지용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함.

- 건물주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세입자 역시 11세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살 경우 건물주에게 이를 알려야 함.
 - 市는 고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www.nyc.gov/html/doh/html/win/win.shtml)

(www.nyc.gov/html/acs/html/pr_archives/pr09_08_25.shtml)

도 시 환 경

15. ‘안 쓰는 땅을 텃밭으로’, 도심농장 확대 (런던)

- 런던市는 시민이 직접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텃밭을 늘리는 쌈지농장(Capital Growth) 사업에 15만 파운드(약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임. 이 예산은 버려진 공간을 텃밭으로 가꾸는 데 주로 쓰일 예정임.
- 市는 지역 주민단체나 개인이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일굴 수 있도록 소규모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 규모는 지원 대상자별로 200~1500파운드(약 38만~280만 원) 정도임.
 - 이외에도 텃밭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이미 학교시설, 건물 옥상, 개인 정원, 지역 공원, 수로 인근 공터 등을 대상으로 150여 개의 텃밭 예정지를 확보한 상태임.
- 이밖에 런던교통공사가 환경단체인 London Food Link와 함께 2012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2012개의 텃밭을 만드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
 - 특히 템스강 남쪽 서더크 지하철역사 위의 재개발 예정지역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텃밭 용지로 제공해 도심 텃밭이 확대되는 데 기여함.
- 런던 지하철은 매년 여는 지하철역사 가꾸기 경연대회에 식용 가능한 과일과 채소 가꾸기 부문을 신설하여 지하철 주변 텃밭 가꾸기를 지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438)

(www.tfl.gov.uk/assets/downloads/LU-Biodiversity-Action-Plan-final.pdf)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텃밭 일구기 소규모 기금제도’, ‘텃밭 대상지역 확보사업’, ‘쌈지농장 사업’, ‘지하철역사 가꾸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도시 내 농작물 경작공간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런던 사례는 지역사회 부근에서 주민들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여 시민의 참여를 북돋운 사례임.
- 서울수도 고령화시대 진입이나 주말 여가활동의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 내의 비녹화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경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경작공간을 찾아내어 작물 재배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거센 개발압력으로 인해 주요 산 부근 그린벨트를 이용한 텃밭 경작공간도 용도변경이 되고 있고, 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태임.
- 도시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런던시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텃밭을 이용·관리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jkim@sdi.re.kr)

16. 공공건물에 온실가스 저감대책 확대 시행 (런던)

- 런던시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병원, 학교, 구청 등 공공건물부터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됨.
- 시는 그동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공건물 개조, 보수사업을 펼쳐 42개소의 친환경 건물을 조성함. 이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도 거둔 시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임.
- 1차 개조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런던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건물로 개조된

일포드 소방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임. 2010년 3월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소방서 9개소, 경찰서 10개소, 런던교통공사 건물 22개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27% 줄이고 에너지비용을 총 100만 파운드(약 19억 원) 절약한 것으로 조사됨.

- 앞으로 市 소속 건물 58개소가 추가로 친환경 건물로 개조될 예정임. 현재 런던에 있는 공공건물은 런던市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8%(350만 톤)를 배출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398)

>>> 전문가 검토의견

-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 대상인 건물 개조사업은 저탄소 사회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선택과 집중전략의 핵심임. 런던市가 병원, 학교 등 공공건물에 확대 시행하는 건물 개조사업은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임.
- 특히 런던市에서 2025년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려는 목표의 실천 전략으로 추진 중인, 탄소 저감 건물로 개조하는 사업은 향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어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약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기후친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7월 2일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건축물 에너지 이용 진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제정·적용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총량 관리를 위해 향후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민간건물에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7.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 (뉴욕)

-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도심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규칙을 개정해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이는 주거지역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물질 관리·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임.
-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물에서의 특정물질 사용 금지조항을 두어 주거지역에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2020년까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비주거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

(www.nyc.gov/html/dep/pdf/final_perc_rule.pdf)

18. 폐쇄된 공항 부지에서 '2017년 국제 정원 전시회'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7년 국제 정원 전시회'를 템펠호프 공항(베를린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2008년 폐쇄) 부지에서 열 계획임. 이 공항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 안 공항으로서 지명도와 위치, 크기 등에서 국제적인 정원 전시회를 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음.
- 2008년 공항 폐쇄 이후 市는 전시회 유치를 위해 애써왔음. 市는 전시회 개최 준비와 동시에 이 부지를 21세기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온갖 종류의 식물과 꽃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위해 스포츠, 레저, 문화체험 공간 등을 설치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11/nachricht3707.html)

(www.stadtentwicklung.berlin.de/iga_2017)

19.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 추진 (일본)

○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도쿄都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안함.

- ①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감축을 달성하도록 함.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함.
- ② 일본 경제 전체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에너지 절약기술과 재생에너지 도입·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와 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함.
- ③ 장래 형성될 국제 탄소시장을 염두에 두고 선도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함.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함.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함.

(www.metro.tokyo.jp/INET/CHOUSA/2009/11/60jbu100.htm)

20. 재생에너지 공급·이용을 위한 지역 간 제휴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都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공급·이용을 위한 지역 간 제휴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이 필수적임. 都는 지방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도쿄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휴사업을 펼침으

로써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고용 확대를 동시 달성하도록 함.

- 都는 이 사업의 첫 단계로 치요다區-아오모리縣 간 협정을 체결함. 두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이용, 지역 간 제휴를 촉진하는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게 됨. 현재 都는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파트너를 모집 중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9/12/22jc4100.htm)

도 시 교 통

21. 환경부담 없는 수로 건설 추진 (베를린)

○ 하노버와 베를린을 잇는 수로 건설계획인 ‘통일독일 교통 프로젝트 No. 17’이 추진될 예정임. 이는 1990년대 초 독일 연방정부가 동서로 단절되었던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17개 통일독일 교통계획 중의 하나임.

- 베를린市는 2009년 12월 1일 베를린에 해당하는 구간의 수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새로 건설되는 수로 구간은 市 서쪽 경계에 위치한 하벨 호수와 슈프레 강의 샬로텐부르크 수문까지의 북쪽 구간임.

· 현재의 수로는 커다란 화물선박이 들어오기에는 좁음.

- 市는 도시와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로를 건설할 계획임. 하벨 호수와 슈프레 강은 베를린의 자연·문화유산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임.

· 市는 강변의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도 길이 185미터, 폭 11.4미터, 깊이 2.8미터의 커다란 화물선이 운행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임.

- 市는 2009년 말에 수로 건설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12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2013년부터 수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1/148133/index.html)

22.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논란 (중국)

○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자전거, 모터사이클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로 정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게 40kg 이상, 시속 20km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경량 전기 모터사이클’ 또는 ‘전기 모터사이클’로 명명하고 기동차(동력엔진 차량)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점임.

- 중국 자전거협회는 전기자전거를 기동차로 분류하면 이는 곧 자동차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함. 이에 정부는 곧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전기자전거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전기자전거의 무게와 시속을 각각 40kg, 2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산업체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 중국 내 전기자전거 보유량은 3000만~4000만 대이고 전기자전거 생산량의 90% 이상은 모두 중국 내에서 판매됨.

(<http://news.mycar168.com/2009/12/148189.html>)

도시계획·주택

23. 공공공간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런던)

- 런던시는 야외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복잡한 도시에 아름답게 디자인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임.

- 시는 향후 3년 동안 2억 2000만 파운드(약 4200억 원)를 들여 런던 내 녹지와 물길을 따라 50개의 공공공간(가로, 도로, 광장, 녹지, 수변 공간 등)을 조성함.

- 시는 이 프로젝트로 단절된 런던의 도로, 공원, 운하, 강, 광장, 유적지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298)

한 줄 뉴스

- 영국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2기 에코타운 건설계획 추진

- 베를린
 - 겨울철 노숙자를 위해 야간에 지하철역 개방

- 일본
 - 도쿄都 등 수도권 8개 도·현·시가 중소기업과 에너지·환경 분야 육성대책과 고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긴급 요청